

후쿠에 성터

후쿠에성은 도쿠가와 막부(1603~1868)가 무너지고 무사 계급이 해체되기 전에 지어진 마지막 성입니다. ‘이시다성’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성은 일본에서 보기 드문 ‘해성(海城)’ 가운데 하나입니다. 축성 당시 후쿠에성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해자에는 바닷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후쿠에 번주인 고토 집안은 몇 번이나 막부에 축성 허가를 청원하였으나 1849년까지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막부는 외국의 해군력과 침략 위협에 대한 근심이 컸기 때문에 후쿠에성은 일본의 해상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번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었기도 해서 축성에는 14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해안가라는 입지 조건 때문에 인부들은 썰물 때에만 기초 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성벽에 필요한 돌을 정확하게 자를 수 있는 숙련된 석공도 부족했습니다. 지역 석공들은 멀리 홋카이도의 하코다테까지 기술을 배우러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성의 내부 구조는 완성한 지 불과 9년 뒤인 1872년에 해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외벽, 해자, 돌다리가 남아 있으며, 1858년에 번주 고토 모리아키라(1816~1890)가 지은 은신처와 정원도 있습니다. 또한 담장 안쪽에는 고토 관광 역사자료관이 있습니다.